

K-김치, 세계 시장 향한 도약 가속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 성황… 김장문화 전통·김치산업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한국 전통 발효음식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뻗어나가며 글로벌 식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제6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김치의 날’은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의 우수성과 김장문화의 전통을 알리고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김치품평회 수상자 시상식과 기념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김치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념식 후 박물관 앞 광장에서는 김장 재현 및 체험 행사가 이어졌다. 경복궁 일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직접 김장을 체험하며 김치가 지닌 품미와 문화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공간은 한국 고유의 김장문화와 K-김치의 매력을 알리는 현장형 홍보 무대가 됐다.

오후에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주관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되어 학계·산업

계·문화분야 전문가들이 김치 세계화의 과학적 근거와 문화적 가치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김치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해외에서의 김치 인지도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주·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5개국 16

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며 세계 각지에서 김치의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는 우리의 생활문화를 담은 전통음식이자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식품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치산업이 미래 수출형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K-김치가 세계 식품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로 우뚝 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한 '2025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지난 21일 전주KBS시민독자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25 사랑의 김장나눔’ 성료

전북농협 · KBS전주방송총국 공동주최

전북농협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 주최한 '2025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지난 21일 전주KBS시민독자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박영관 KBS전주방송총국장, 전정희 여성가족재단 원장, 광복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주요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고흥주부모임 전북도지회, 농가주부모임 전북연합회, 전북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전북지역 여성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온정을 나눴다.

올해 김장나눔 행사는 다양한 민·관 단체의 후원으로 더 풍성하게 진행됐다. (주)하림, 캠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사랑의열

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강태원복지재단,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전북농협 여성책임자모임 NH아리아 등이 후원에 참여하며 사회적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김장 담그기 외에도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하림에서 마련한 간식 시식코너를 비롯해 쌀 소비촉진을 위한 뽕튀기 나눔이 마련됐으며, 농협중앙회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농심천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체험부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존에서는 포토존 촬영, 농심천심 배지·엽서 만들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전북전주올림픽 개최 홍보도 함께 펼쳐졌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전주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지난 20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Lovely Concert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5년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전국 순회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로, 호남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1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중기중앙회는 바쁜 업무 속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사랑·문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콘서트는 충청·서울·수도권·영남권·호남권과 MBC 합동 콘서트까지 총 여섯 차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참석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콘서트 개최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방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전달했다.

콘서트는 프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운승업 지휘자의 연주를 중심으로 테너 진성원, 바리톤 길병민, 소프라노 박소영, 재즈보컬리스트 고아라, 쇼파 이어그룹 하모니이즈 등 국내 정상급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클래식 명곡부터 영화 OST, 팝송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또한 곡 분위기에 맞춰 제작된 영상 이 음악과 함께 상영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콘서트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2025 가족친화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지방공기업 중 유일 선정… ‘일·생활 균형 문화 선도 공로 인정’

전북개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북개발공사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으며 가족친화 경영의 선도기관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번 포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가족친화인증기관 중 1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그중 국무총리표창은 단 5개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고 수준의 영예로,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다.

전북개발공사는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생 축하금을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봄시간 제도를 신설해 조부모 세대 직원에게도 1일 2

시간씩 최대 12개월간 돌봄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 배우자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MZ세대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입사 5년 미만 직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복지제도도 시행 중이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국무총리표창은 임직원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2025 재생에너지 안전 컨퍼런스’ 성료

산·학·연 300여명 참여… 공공기관 합동 채용 행사도 열려

최근 '2025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전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완주 본사에서 '2025 재생에너지 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에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전문가, 학계 연구진, 공공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컨퍼런스는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으로 시작해, 이틀간 총 8건의 전문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발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태양광 혁신기술(윤재호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재생에너지 수변전설비 안전관리 전략(김종필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 교수) △태양광 모듈의 이해(한화솔루션 최선 프로) 등 재



생에너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다채로운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신청자들은 'AI 기반 ESS(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센터'를 견학하며 전기안전공사의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오상근 기자

학교급식-지역가공업체 잇는 소통의 장

김제·부안 지역가공업체 거리 교류회' 성료

전북 지역 학교급식 현장과 지역가공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김제·부안 지역가공업체 거리 생산·소비 소통 교류회'가 지난 20일 김제시 가족센터에서 열렸다.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남원·군산·완주·익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한 이번 교류회는 지역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이 학교 및 공공급식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김제·부안 지역 학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급식 담당자, 지역농산물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지역가공업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 애로사항과 개선점, 품질요구 등을 공유하는 실질적 교류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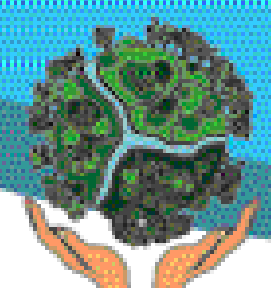


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 지역가공업체 관계자는 “1인 기업의 한계로 학교급식 분야에서 제품 홍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교류회에서 영양교사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개선점을 찾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지역 먹거리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요자 간 꾸준한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행동인